



주최:나라현 후원:일본국 총무성, 일본국 외무성

본 사업은 일반재단법인자치체국제화협회의 조성사업에 의해 실시되었습니다.



The 6th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2015

2 0 1 5 N A R A

제6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The 6th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보고서

회 기 2015년
10월25일 (일) ~27일 (화)



제6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보고서

【 목 차 】

프로그램	2
인사	3
참가 지방정부 단장 목록	4
실무자 토의	
테마1 ‘관광에 의한 지역경제의 진흥’	8
테마2 ‘마을 만들기, 지역 만들기’	15
테마3 ‘농업·농촌 진흥’	20
기조 강연	24
수장 토의	
테마1 ‘관광에 의한 지역경제의 진흥’	25
테마2 ‘마을 만들기, 지역 만들기’	33
테마3 ‘농업·농촌 진흥’	41
분과회 등 보고	49
총회	50
대표기자 회견	51
신문 기사	57
자료집	
◇테마1 ‘관광에 의한 지역경제의 진흥’	
[강사 스피치 자료]	
야마다 케이치로 [JTIC.SWISS대표, 정부인정 관광 카리스마]··	67
[리저널 리포트]	
·허난성	72
·산시성	74
·지안시	76
·뤄양시	78
·양저우시	80
·황산시	82
·육야카르타 특별주	84
·공주시	86
·부여군	88
·푸토성	90
·투아티엔·후에성	92
·아오모리현	94
·야마가타현	96
·이시카와현	98
·후쿠이현	100
·기후현	102

·미에현	104	·나라현	114
·교토부	106	·다자이후시	116
·와카야마현	108	·텐리시	118
·돗토리현	110	·가지하라시	120
·가가와현	112	·고세시	122

◇테마2 ‘마을 만들기, 지역 만들기’

[강사 스피치 자료]

고토 겐이치 [(주)Prot Asia and Pacific 대표이사 회장, 내각부 지역활성화 전도사]	125
---	-----

[리저널 리포트]

·청두시	164	·고치현	184
·웨이팡시	166	·나라현	186
·말라카주	168	·다가조시	188
·경상북도	170	·아라카와구	190
·후쿠시마현	172	·이카루가초	192
·니가타현	174	·아스카무라	194
·나가노현	176	·고료초	196
·시마네현	178	·시모이치초	198
·도쿠시마현	182		

◇테마3 ‘농업·농촌 진흥’

[강사 스피치 자료]

다카기 유키 [NPO법인 일본프로농업종합지원기구 이사장, 전 농림수산 사무차관]	201
---	-----

[리저널 리포트]

·장쑤성	212	·도야마현	228
·쑤저우시	214	·야마나시현	230
·린이시	216	·시즈오카현	232
·둥잉시	218	·구마모토현	234
·서자바주	220	·나라현	236
·경기도	222	·니가타시	238
·충청남도	224	·나라시	240
·서산시	226		

2015

10/25(일)

호텔 그란비아오사카

18 : 00 - 19 : 30

교류회

2015

10/26(월)

호텔 닛코나라

08 : 30 - 08 : 45

오리엔테이션

08 : 45 - 12 : 00

실무자 토의 (사례 발표)

12 : 00 - 13 : 00

점심 ①

13 : 00 - 13 : 20

개회식

13 : 20 - 13 : 40

기조 강연

13 : 45 - 14 : 15

분과회 등 보고

14 : 20 - 17 : 15

수장 토의

17 : 25 - 17 : 40

총회

17 : 40 - 18 : 00

기념 촬영

18 : 15 - 18 : 45

대표 기자회견

19 : 00 - 21 : 00

지사 초청 연회

2015

10/27(화)

호텔 닛코나라

08 : 30 - 12 : 00

익스커션 (나라 국립박물관 , 고후쿠지 (興福寺))

12 : 00 - 13 : 00

점심 ②



아라이 쇼고 나라현지사

2010년 헤이조 천도 1,300년을 계기로 설립한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은 올해로 제6회 째를 맞는다. 각 지방정부 대표들이 지역의 실정과 과제를 보고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공통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의 목적이다.

오늘 전체 회합에서는 미리 개최한 분과회 등 보고를 마친 후에 ‘관광에 의한 지역경제의 진흥’ ‘마을 만들기, 지역 만들기’ ‘농업·농촌 진흥’의 3테마에 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의 논의가 이루어진다. 각 지방정부는 그 지역의 선진적인 시책과 과제에 관한 기탄없는 발언을 통해 행정 능력을 높이고 상호 우호교류도 증진시켜 주시길 바란다.

또 전체 회합에 앞서 각국 지방정부가 협력해 홍보하는 지역관광프로모션 이벤트를 그제께부터 이틀간 오사카에서 개최했다. 이틀 동안 약 12만 명이 방문하는 등 이벤트는 큰 성황을 이루었다. 참가하신 지방정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

내일은 익스커션으로 준비한 쇼소인전 견학과 고후쿠지국보관 관람을 통해 나라의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란다. “여러분, 나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시하라 노부오 일반재단법인 지방자치연구기구 회장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에는 제1회 때부터 참가하고 있으나, 횡수를 거듭할수록 토의 내용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매우 흡족하게 생각한다.

이번 회합에서는 각 지자체의 관심이 가장 높은 ‘관광에 의한 지역경제의 진흥’ ‘마을 만들기, 지역 만들기’ ‘농업·농촌 진흥’ 등 3테마에 관해 논의된다. 각 지방정부의 시책 소개와 토론을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국가 간 관계는 영토와 자원 등의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각 정부 책임자의 임무이다. 이 회합과 같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통된 테마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은 국가 간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큰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의 개최를 통해 국가와 국가, 국민과 국민의 관계가 심화되어 매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회합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바이다.

People's Republic of China

Name	Organization
Henan Province	
WANG, Jinglin	Deputy Mayor, The People's Government of Luoyang City
Shaanxi Province	
YANG, Zhongwu	Director General, Shaanxi Provincial Tourism Bureau
Chengdu City	
LI, Xudong	Head of the Secretariat, Chengdu Municipal Foreign and Overseas Chinese Affairs Office
Huangshan City	
ZHOU, Yong	Executive Vice Mayor
Suzhou City	
ZHANG, Jinhai	Deputy General Secretary
Dongying City	
HAO, Ligang	Researcher, Dongying Municipal Agricultural Bureau

Republic of Indonesia

Name	Organization
Province of West Java	
Mohammad Taufiqbudi Santoso	Head of Bureau, Regional Autonomy and Cooperation Bureau
Province of Yogyakarta Special Region	
Imam Pratanadi	Head of Division, Marketing Division, Tourism Authority

Malaysia

Name	Organization
Melaka State	
Zaidi Attan	Member of Melaka State Legislative Assembly

Republic of Korea

Name	Organization
Gyeonggi-do Province	
SONG, You Myun	Director General, Agricultural Maritime Administration Bureau
Chungcheongnam-do Province	
HEO, Seung Woog	Vice Governor
Gongju City	
MYEONG, Gyu Sik	Deputy Mayor
Seosan City	
JUN, Soo Il	Director General,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Buyeo County	
RHI, Ryong Woo	Mayor
Gyeongsangbuk-do Province	
WOO, Byung Yoon	Vice Governor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Name	Organization
Phu Tho Province	
HOANG Cong Thuy	Vice Chairman, The Phu Tho People's Committee
Viet Tri City	
LE Sy Hong	Vice Chairman, The Viet Tri City People's Committe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Name	Organization
Quezon City (Guest)	
Ma. Josefina G. BELMONTE	Vice Mayor

Japan

Name	Organization
Aomori Prefecture	
TONUMA, Yasuhiro	Director, Tourism Planning Division, Tourism and International Affairs Strategy Bureau
Yamagata Prefecture	
SASAKI, Noriko	Director, International Tourism Section Tourism Promotion Division
Fukushima Prefecture	
KAGEYAMA, Hiroshi	Office Director, Osaka Office
Niigata Prefecture	
TAKAHASHI, Hiroki	Director For Chinese Affairs,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Governor's Policy Bureau
Fukui Prefecture	
MATSUO, Daisuke	Director, Tourism Promotion Division, Fukui Promotion Department
Yamanashi Prefecture	
KITTA, Yasushi	Director General, Agriculture Department
Nagano Prefecture	
KOIWA, Masaki	Director General, Planning and Development Department
Shizuoka Prefecture	
YOSHIDA, Shigeru	Director of Agriculture, Economic and Industry Department
Mie Prefecture	
OHIRA, Kazuki	Deputy Director, International Strategy Division,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Economic Affairs
Kyoto Prefecture	
KAMESAWA, Hirofumi	Director, Tourism Division, Department of Commerce, Labor and Tourism
Wakayama Prefecture	
KITAYAMA, Toru	Director, Culture and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Tottori Prefecture	
YOSHIMURA, Fumihiro	Director General, Tourism and Exchange Bureau
Shimane Prefecture	
SONOYAMA, Tsukushi	Director General, Approved Specified Nonprofit Corporation Ashibue
Tokushima Prefecture	
TAKATA, Hiroshi	Director General, Environment and Citizens' Affairs Department
Kagawa Prefecture	
YASUMATSU, Nobuaki	Director General, Exchange Promotion Department
Nara Prefecture	
ARAI, Shogo	Governor
Arakawa City	
UMEHARA, Kazuhiko	Manager, General Affairs and Planning Section
Niigata City	
KIMURA, Yuichi	Vice Mayor
Nara City	
NAKAGAWA, Gen	Mayor
Tenri City	
FUJII, Junichi	Vice Mayor
Kashihara City	
MORISHITA, Yutaka	Mayor
Gose City	
HIGASHIGAWA, Yutaka	Mayor
Ikaruga Town	
KOJO, Toshishige	Mayor
Asuka Village	
MORIKAWA, Yuichi	Mayor
Koryo Town	
YAMAMURA, Yoshiyuki	Mayor
Nara Prefectural Assembly	
INUI, Hiroyuki	Chairman, Special Committee on Tourism Promotion
IWATA, Kunio	Chairman, Committee on Construction

The 6th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개요



실무자 토의

테마1 ‘관광에 의한 지역경제의 진흥’

참가 지방정부	중 국 : 허난성, 산시성, 안후이성 황산시 인도네시아 : 욕야카르타 특별주 한 국 :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부여군 베 트 남 : 푸토성, 푸토성 비엠티시 일 본 : 아오모리현, 야마가타현, 후쿠이현, 교토부,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가가와현, 나라현, 나라현 덴리시, 나라현 가시하라시, 나라현 고세시
강 사	야마다 케이치로 JTIC.SWISS 대표, 정부인정 관광 카리스마

참가 지방정부 리저널 리포트 발표 개요



중국 · 허난성

허난성은 관광을 공동으로 창조하는 의식 양성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제 및 인프라 정비, 관광상품 모델 체인지를 목표로 ‘중원 경제구의 관광 목적지와 허브 집객지 확립’ 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① 시 관광집객센터 개설과 5대 통일운영 모델(노선, 가격, 발권, 스케줄링, 결제)의 채용
- ② 관광지 이용객 수와 관광버스 운행 등의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
- ③ 사계절을 통한 투어와 9대 브랜드(모란, 스키, 온천, 역사, 문화, 친환경, 공업, 농업, 현대도시 풍경 등)의 수립
- ④ 시민을 대상으로 한 뒤편 관광 연간패스포트 발행과 적용 범위의 확대



중국 · 산시성

산시성은 역사·문화 관련 관광 자원이 풍부하나 도시와 농촌의 관광 수입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관광업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농촌 관광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유명 농촌 관광지에는 많은 관광객이 농업 체험과 시골 요리를 즐기러 찾아온다.

시책으로는 행정이 완벽한 계획 체계 정비와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중점 육성 지역을 선정해 지역 산업을 진흥했다. 또 관광 콘텐츠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근대 서비스업이라는 개념 하에 관광 리조트와 레저 시설의 건설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재정을 늘려 브랜드 개발과 인재 육성, 서비스 향상이 실현되도록 힘 쓸 계획이다.



중국 · 황산시

황산시는 ‘안후이성 남부 국제문화관광 시범구’ 를 목표로 세계 일류 관광지 및 중국 우수 전통문화 전승혁신구역의 정비를 서둘러 추진하기 위해 관광을 통한 다 분야의 경제 성장과 중요 프로젝트를 통한 견인력 강화, 관광 국제화 촉진, 국립공원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성과로서 국제 브랜드 관광지 형성과 레저 리조트, 보양 등 새로운 관광업의 창출, 명진명촌(名鎮名村) 브랜드 경승지화, 국제 브랜드 관광루트 정비 등을 달성했다. 또 ‘세계 관광지 관리상’ 을 수상하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세계 지속가능 관광협의회에 가입했다. 과제로는 관광상품의 질 향상과 단일화를 들 수 있다.



한국 · 공주시

공주시는 백제의 옛 도읍이다. 2015년 7월에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관광객이 4 배 이상 증가했다. 백제 문화제에도 매회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늘어나는 관광객에 비해 숙박시설이 부족해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통가옥의 집객·숙박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주민 소득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아 지역 경제의 연계가 과제가 되고 있다. 그 대응책으로 공주시는 고도 보존 사업을 통해 구도심에 잇는 전통 가옥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다양한 안전시설을 마련하는 등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한국 · 부여군

부여군은 백제의 수도로 국보 4 점을 비롯한 250여 종의 문화재를 가진 역사 문화 도시이다. 2015년 7월에 부여·백제 역사유적지 4곳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 관광객이 2 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현저한 숙박시설 부족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주된 당일치기 여행지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세계유산 등재 이벤트 등)와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볼거리 확충(수상 레저, 촬영 명소 조성 등), 주변 지역(백제문화권, 금강권, 지역행복생활권)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 욕야카르타 특별주

욕야카르타는 자연과 문화적 자원이 매우 풍부하나 빈곤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제 발전과 빈곤 감소를 위해 관광 진흥을 주요 정책으로 결정했다. 그 지역의 경제를 현지 관광 자원으로 진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14년까지 50곳 이상의 관광 촌락과 관광업 발전을 지원하는 50개 관광그룹이 확충되면서 실제로 각 촌락의 주민 소득이 개선됐다. 향후는 지역의 매력과 관광 자원 등을 살려 촌락에 특화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일부 촌락 사이의 사회적 대립과 모순, 관광 촌락으로서 충분치 못한 자원 등이 과제이다.



베트남 · 푸토성

푸토성에는 1,374개 사적이 있고 비엠티시에는 국보 홍사와 73개 중요 문화재가 있다. 또 262개 전통 제사가 열려 ‘소안 전통가요’ ‘훈왕 예배’ 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관광은 푸토성 경제의 기폭제로 최근에는 일반 관광객과 체류 관광객 모두 증가해 높은 관광 수익을 올리고 있다. 푸토성에서는 훈왕 유적을 중심으로 기타 중점 관광 지역센터와 연계해 관광상품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기업과 주민 모두 높은 의식을 가지고 관광 개발, 진흥에 참여하고 있고 행정도 주민 의사와 이익을 중시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관광객은 750만 명, 관광 수입은 전년 대비 3.5배 증가했다.



일본 · 아오모리현

아오모리현은 단체에서 개인 · 그룹으로 변화하는 관광 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선택받고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높은 관광 경쟁력을 가진 아오모리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 ‘매력 있는 관광지 개발을 통한 지역 브랜드 확립’ 에 관해서는 ①지역 DNA(문화 · 전통)를 그대로 살린 ‘아오모리 생활 투어리즘’ 의 추진 ②그린 투어리즘 등 뉴 투어리즘의 추진 ③아오모리 네부타축제, 도와다호 등 대표적 콘텐츠의 매력 강화와 새로운 관광상품 제안 등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대응 인력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수익 확보에는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일본 · 야마가타현

다양화하는 개인 요구에 대응하는 새로운 관광 유형의 창출과 관광 소비액 증대, 동일본 대지진으로 감소한 외국인 관광객의 회복이 과제이다. 또 2019년까지 관광 소비액을 2,100억 엔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①아침 · 점심 · 저녁 · 밤의 시간대 별 야마가타 관광을 제안하고 숙박으로 연결 ②결연을 테마로 한 ‘데와 3대 명사찰 참배’ 등 스토리성 있는 지역 자원을 연계해 호소력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 ③기존 지역 자원의 새로운 매력 창출과 부가가치 향상 ④중점 시장인 대만, ASEAN의 특성에 대응한 인바운드 유치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관광객은 크게 증가했으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는 고전하고 있다.



일본 · 후쿠이현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매력 있는 지역 만들기를 위한 새로운 관광 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최상’ 을 키워드로 후쿠이현의 역량을 집중해 ‘후쿠이현립 공룡박물관’ ‘이치조다니 아사쿠라시 유적’ 에 초점을 맞춰 집중 홍보하는 전략이다. 이 2곳을 현민이 관광객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도록 현민의 이해를 촉진하고 현 외에 홍보한다. 또 호쿠리쿠 신칸센의 개통으로 간토 지역과의 교통이 편리해졌다. 후쿠이현까지 연장되면 향후 더욱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과 관광객의 요구에 대응한 프로모션과 현대 서비스 강화, 인재 육성을 추진함과 동시에 몇 번이고 다시 찾고 싶어지는 후쿠이현을 실현하기 위한 ‘최상’ 의 관광 자원을 개발해 나간다.



일본 · 교토부

교토부 전체 관광객의 98%를 교토시가 차지하고 있어 교토시 외 지역의 관광 홍보가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다’ ‘숲’ ‘차’ 등 관광 자원의 특색이 부각되도록 지역을 북부, 중부, 남부, 오토쿠니로 구분해 관광객 유치에 임하고 있다. 또 각 지역에서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스스로 관광 상품과 루트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간사이 광역연합은 외국인 관광객의 다양화하는 관광 스타일에 광역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간사이 전체에서 매년 통일된 테마를 정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넓고 길게 체류할 수 있는 광역 관광 주유 루트의 확립에도 힘쓰고 있다.



일본 · 와카야마현

2014년 와카야마현의 숙박 외국인 관광객은 30만 명을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간사이공항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와 세계유산 고야산 · 구마노, 온천 등 풍부한 관광 자원을 무기로 관광객의 유치 ·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와카야마현과 같이 세계유산 순례길이 있는 스페인 갈리시아주와 자매결연을 하고 공동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증가하는 개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Wi-Fi 정비와 면세점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또 아시아에는 온천과 풍부한 해산물을 어필하고 미국 · 유럽에는 ‘론리 플래닛’ 등 세계적인 여행 가이드북을 통해 세계유산을 홍보함으로써 인지도 향상과 인바운드 촉진으로 이어 갈 것이다.



일본 · 돗토리현

돗토리현은 한국 간 국제 정기항공편과 일본 · 한국 · 러시아를 잇는 환일본해(동해) 정기화객선 항로 등 한국과 돈독한 유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정기 항로를 통해 인바운드를 추진해 왔으나, 향후는 더욱 넓은 지역의 다양한 관광객 유치를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돗토리현의 자연과 음식, 만화 등 매력 있는 관광 콘텐츠를 최대한 어필하면서 타기팅을 통한 홍보와 2차 교통, Wi-Fi 정비 등 관광 시설의 편리성 향상에도 힘쓸 것이다. 또 중점 관광객 유치 시장으로 설정한 한국과 대만, 홍콩, 중국 외에 러시아와 동남아까지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 · 가가와현

가가와현은 당일치기 관광객이 많아 체류형 관광의 확보가 과제이다. 이에 따라 ‘우동’ 외에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개최 등 ‘아트’ 를 통한 관광지 조성 and 인재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세토우치 근린 7현이 참가하는 세토우치 브랜드추진연합을 만들어 광역 관광의 추진에도 힘쓰고 있다. 관광 콘텐츠 개발도 과제로 전략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타기팅과 관광 이외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Wi-Fi 정비와 서비스 향상 등 수용 환경의 정비가 뒷받침돼야 하나 현민 모두의 의식 개혁도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 · 나라현

나라현은 풍부한 관광 자원에 비해 숙박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1인당 관광 소비액을 증시해 부유층과 지식층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소비로 지역을 윤택하게 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 없이 안심하고 관광을 즐기도록 재방문으로 이어지도록 홍보 강화와 적극적인 해외 프로모션 전개, 수용 환경의 정비, 현대 서비스 충실에 힘쓰고 있다. 금년도 외국인 관광객 수와 외국인 숙박객 수는 과거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통과형 관광인 점과 비수기(겨울철) 숙박이 적은 점, 교통의 편리성 향상, 미국 · 유럽발 직행 편수가 적은 점 등이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 · 덴리시

덴리시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길인 ‘야마노베노미치’를 비롯한 수많은 문화재와 역사 유산, 풍부한 자연을 가진 도시로 스포츠도 활발하다. 그러나 덴리시 전체의 매력으로서 알려져야 할 자연과 역사, 문화의 매력이 개별적으로 홍보되면서 실제 지역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념품과 음식, 덴리역 광장 리뉴얼 등 지역의 매력을 가시화함으로써 주민들 자신의 이해를 촉진하고 관광객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힘쓸 계획이다.

또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인구 비율이 낮은 점을 감안해 육아 세대와 현역 세대에게 선택받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일본 · 가시하라시

가시하라시는 오사카와 교토, 간사이공항과 접근성이 좋고 후지와라 궁터, 이마이초, 가시하라 신궁 등 많은 관광 명소가 있으나 숙박과 주유로 이어지지 않는 단순한 당일치기 관광이 대부분이다. 관광객을 나라현 중남부에 유치하기 위해 중남부 근린 14개 시정촌과 연계해 ‘나라현 중남부 관광거점도시’의 실현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프리미엄 숙박 플랜 활용과 주유관광 촉진 쿠폰 발행, 역 앞 호텔 건설, 전국 ·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그리고 인바운드 시책으로 무료 버스 투어와 국제 교류원의 가시하라시 홍보, 부산 수학여행단의 수용 등이 있다.



일본 · 고세시

고세시 관광객은 약 35만 명으로 추산되나 그중 숙박을 동반하는 관광객은 약 3,500명으로 매우 적다. 이는 시내에 숙박 시설이 1곳밖에 없는데다 편의성이 낮고 관광객이 봄의 철쭉 시즌에 몰리고 있으며 비즈니스 관계 숙박객이 적은 것이 요인으로 생각된다. 또 음식점과 기념품점 등 관광 산업이 부족해 관광객 소비가 매우 적다. 이에 따라 ‘우편 나가라관’ ‘우편 정원’ 등 새로운 관광지 정비와 ‘고세 역사 독본’ ‘엽서 명문 쿡쿠르’ 등 새로운 수법의 홍보, ‘고세 럭비 페스티벌’ 등 스포츠와 문화 등을 통한 교류 인구 획득에 노력하고 있다. 또 주변 시정촌과의 연계 방법도 검토 중에 있다.

참가 지방정부 의견 교환부터

○ 공산성 등의 세계유산 등재 후 관광객이 4배 이상 늘었으나 숙박시설과 음식점 부족으로 관광객이 주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숙박시설 부족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시설을 건설 · 운영하고 있으나 음식점 부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향후 관광객 수를 예측할 수 없어 투자를 망설이는 상황이다. 인프라 정비 부족을 반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준비해 나가고 싶다.

(한국 · 공주시)

○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했을 때 수용 체제가 충분치 못 하면 대응이 불가능해지고 고객 만족도 얻을 수 없어 관광객의 재방문은 기대할 수 없다.

(야마다 강사)

○ 관광 소비액 산출에는 관광청의 공통 기준을 이용하고 있으나 정확하고 현실적인 수치를 파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을 느낀다.

(일본 · 나라현)

○ 중국 관광국의 역할은 매우 크다. 일본 관광협회 · 관광연맹 등의 조직 운영과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 · 산시성)

○ 지역 관광의 핵심 인재 육성에 관해 지역에서 연수와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광 활성화만이 살 길이라는 의식을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향후는 지역 만들기를 위한 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관광 에이전트’ 육성에도 노력하고 싶다.

(일본 · 아오모리현)

○ 세미나와 공부 모임을 개최할 때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신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을 강사로 초빙해 실제 경험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단순히 성공사례 수법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무엇을 중시하며 노력했는가에 초점을 맞춰 지역에서 성공하기 위한 사업화를 모색하는 강좌를 열면 좋은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관광 서비스의 무료 제공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가치 있는 서비스를 관광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행정 이 지역 주민들에게 강요하면 의욕 있는 주민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 자원봉사자의 경우 고객 만족이 아닌 자기만족이 우선돼 고객 만족도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아울러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야마다 강사)

○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관광객 증가가 한시적 효과로 끝나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구마노 · 고야산 세계유산의 가치는 일본의 종교 정신 문화의 발상지임을 알림으로써 가치가 평가되어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다. 또 세계유산 자체는 물론 보전 노력도 함께 알리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관광객은 물론 CSR 활동의 일환으로 기업이 참가를 원하는 등 복합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일본 · 와카야마현)

○ 관광 자원의 개발 · 발전을 추진하면서 관광 자원이 탕진되지 않도록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꾀하는 일은 우리의 영원한 과제일 것이다.

(야마다 강사)

(강사 총괄 코멘트)



관광은 곧 외화 획득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 쓰이는 돈의 양을 늘릴 뿐만 아니라 돈이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자 간을 빠르게 돌아야 한다. 현금 유동성과 고객 단가를 높여가는 노력 없이는 관광을 통한 경제 진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관광 산업이 활성화할수록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그 결과 고용이 창출되어 정착 인구가 늘어나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된다. 행정은 이점을 중시해 경제 진흥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 현재 관광객의 움직임과 소비 동향은 물론 고객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과제 해결 등 새로운 경영 능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 최근에는 지역 팬클럽을 만들어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화에 임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향후 관광지로서의 성공 여부는 지역의 종합력 발휘 여부에 달려있다. 지역의 미래상과 지역 전체의 브랜드화 등 그 지역 주민의 주체적인 활동과 다양한 산업 사업자 간 연계와 협동이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실무자 토의

테마2 ‘마을 만들기, 지역 만들기’

참가 지방정부	중 국 : 쓰촨성 청두시 말레이시아 : 말라카주 한 국 : 경상북도 일 본 : 후쿠시마현, 나가노현, 시마네현, 도쿠시마현, 나라현, 도쿄도 아라카와구, 나라현 이카루가초, 나라현 고료초
	강 사 : 고토 겐이치 (주)Prot Asia and Pacific 대표이사 회장, 내각부 지역활성화 전도사

참가 지방정부 리저널 리포트 발표 개요



중국 · 청두시

청두시는 인구 1,400만 명의 서부 최대 도시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경제와 사회가 급속히 발전했다. 불균형 개발을 추진한 결과, 도시에 빈민가가 남아 심한 교통 체증과 치안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2년 2월부터 청두시 북성 재개발사업에 착수했다. 이익이 일부에 편중되지 않도록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함께 건설하고 함께 누린다’는 원칙 하에 정부가 주도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퇴거 교섭에는 시민단체와 반상회 등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 경상북도

경상북도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전통가옥 등에 숙박하는 ‘한스테이(농촌 민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른 서비스와 시설 운영으로 신뢰성 확보와 관광객 유치, 주민 소득 증대를 꾀하고 있다. 사업 내용으로는 (1)옛집 · 농가 · 유산 · 전통가옥에 어울리는 통합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윈스톱 서비스 (2)사전 예약 · 홍보 시스템 확충 (3)품질보증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브랜드 신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 세계의 민박 브랜드와 협력 · 연계해 관광객 확보에 힘쓰고 있다. 각 지자체의 축제에 참가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그 지역의 한스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 말라카주

2002년 말라카강 미화 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말라카주 정부는 교통 체증을 피해 도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말라카강을 개발해 관광객 유치 계획을 세우고 하천 제방 건설과 방조문 강화 및 하수 처리 시설과 하수관망, 차량·보행자용 다리 정비 등을 통해 옛 도읍지의 재생과 미화를 실현했다. 그 결과 강 부근 땅값이 급등해 투자자 확보에도 성공했고 강변 호텔 건설도 진행되고 있다. 2010년 이후 미화된 말라카강에서 즐기는 크루즈 체험 투어객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 · 후쿠시마현

동일본 대지진 후의 부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① ‘쓰나미 피해지역 부흥 프로젝트’
해안 제방을 높이고 방재 녹지를 형성하는 등 다중 방호를 실현한다. 이를 통해 종합적인 방재 능력을 높이고 주민과 지역에 대한 방재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하드·소프트 양면의 방재 기능이 강화된 마을을 건설한다.
- ② ‘후쿠시마 유대 강화 프로젝트’
부흥 활동 지원과 피난지·피난민의 유대 강화, 부흥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 ③ ‘후쿠시마 관광 교류 프로젝트’
풍문 피해를 불식하기 위해 국내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관광자원의 질을 높여 현외 지역과의 교류 확대와 인구 회복을 도모한다.



일본 · 나가노현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지역 만들기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 ① ‘지역 현장에서 배우자! 활력 넘치는 나가노현 만들기 실천 학원’
현장에서 필드 워크를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는 연수를 실시
- ② ‘지역발 활력 창출 지원금’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발전성 있는 사업에 대해 시정촌과 공공단체가 지원금을 교부
- ③ ‘취락 “재가열” 실시 모델지구 지원 사업’
지역의 존속을 위해 시정촌과 주민이 함께 임하는 실천적인 시책을 지원
- ④ ‘인구 정착·탄탄한 생활 실현’ 전략 모델 보조금
전국 각지의 공공단체,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발상력이 뛰어난 제안을 모집하고 제안자와 함께 관련 사업을 실시해 인구 정착과 탄탄한 생활을 실현하도록 한다.



일본 · 시마네현

야쿠모초의 ‘NPO법인 아시부예’는 국내 최소 공립극장 ‘시이노미 시어터’의 지정 관리자로서 연극 공연의 제작·공연과 야쿠모 국제연극제 기획·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등 행정·지역 주민과 함께 연극을 통한 마을 만들기에 임하고 있다. 야쿠모 국제연극제는 예산과 교통, 숙박시설 등 국제적 행사 개최에 필요한 절대 조건과 가장 큰 과제이던 주민 자원봉사자 육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리고 주민, 행정, 극단이 충분한 대화를 거듭해 공통 의식을 갖고 사후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반성하고 개선을 거듭한다는 지침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향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마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일본 · 도쿠시마현

도쿠시마현은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국민 문화제를 개최했다. 그 성과로서 나카초 기타가와 농촌 무대에서는 닌교조루리가 부활 상연되고 재즈나 클래식 음악 무대에도 닌교조루리가 사용되는 등 농촌 무대 부활이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 시정촌에서도 문화를 활용한 행사가 확산돼 가미야마초의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가 지역 교류 행사로 정착하고 있고 가미카쓰초는 강연회와 음악제를 개최해 지역 주민과 아티스트, 관객이 함께 만나는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아트 이벤트는 행정이 지역의 자주성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로 지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일본 · 나라현

나라현에는 전통 가옥이 늘어선 역사적인 거리가 곳곳에 존재한다. 나라현에서는 이러한 자산을 마을 만들기의 중요 지역 자원으로 정하고 민간 마을 만들기 단체와 협력해 빈가옥에 현대 아트 작품을 전시하는 ‘ART FESTIVAL HANARART’를 실시하고 있다. 옛 것과 새 것을 조합해 전통 가옥의 매력을 강조함으로써 청년층을 비롯한 많은 방문객을 유치했다. 그 결과, 회장으로 사용된 가옥에 입주할 희망하는 사람이 나타나 셋집이나 점포로 이용·활용되는 사례가 많이 생겨났다. 또 지역 내외의 다양한 교류 촉진을 통해 경관 보존과 상가 이용·활용에 대한 주민 의식이 변화하는 등 지역의 마을 만들기에 좋은 자극이 되고 있다.



일본 · 아라카와구

도쿄 23구 중 아라카와구의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은 비교적 짧다. 따라서 평생 건강 도시의 실현을 목표로 다음의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 ① 건강 증진 시책으로 아라카와구 내 음식점에서 싸고·맛있고·몸에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아라카와 만점 메뉴’를 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해 식생활 개선 의식을 향상시킨다. 또 비만 예방과 해소에 노력하면서 동료와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몸에 익히는 프로그램 ‘NO! 대사증후군 챌린저’를 실시하고 있다.
- ② 개호 예방으로 넘어짐을 예방하는 ‘아라카와 고로반 체조’를 보급시키고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고로반 체조 지도자’도 육성하고 있다.
- ③ 의료비 삭감을 위해 예를 들어 당뇨병 예방 대상자를 추출해 지도하고 중증화 방지 노력과 제네릭 의약품의 보급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 · 이카루가초

이카루가초를 찾는 관광객은 연간 약 80만 명에 이르나 대부분은 호류지를 중심으로 한 거점 통과형 관광이다. 산책·회유·착지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다음과 같은 ‘역사 마을 만들기·관광 마을 만들기’에 임하고 있다.

- ① 역사적인 경관과 조화된 건물의 수경 정비와 도로 가꾸기. ‘특별 용도 지구’를 지정해 음식점과 숙박 시설의 입지를 촉진
- ② 강화(講話)와 사경 등 체험 프로그램을 담은 ‘어른 수학여행’ 관광 투어 실시
- ③ 이카루가초를 흐르는 ‘다쓰타가와’가 이름의 유래가 된 ‘다쓰타 튀김’을 전통 먹거리로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일본 · 고료초

고료초는 예로부터 시민과 새로운 주민이 함께 생활해 오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생활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복잡화하는 요망과 지역 과제에 대응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각 자치회에 지역 담당 직원을 배치하고 그 지역의 과제 파악과 행정 정보 제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지원 등을 실시한다. 그러한 활동 속에서 커뮤니티 카르테(지역 정보 요약)를 지역과 함께 정리해 지역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 나간다. 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직원을 육성한다. 반면,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는 직원들이 지역에 선뜻 나서지 않는 과제도 있다. 꾸준한 대화를 통해 행정과 주민 사이의 거리를 좁혀 나갈 계획이다.

(강사 총괄 코멘트)



규모도 입장도 다른 각 지방정부의 다양한 과제들의 공통점은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지역 활성화와 마을 만들기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키워드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에서는 그다지 가치가 없어 보이는 자원에 글로벌 가치가 숨겨져 있다는 점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의 관점과 지혜를 얻어야 하며 세계가 지역 대 지역으로 연결돼야 한다. 각 지역을 오가며 교류를 거듭함으로써 과제를 공유하고 직접 조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역에서 경쟁하고 교류해 온 것들이 향후는 세계의 공통 테마로 공유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을 만들기, 지역 만들기’를 테마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란다.

참가 지방정부 의견 교환부터

- 이벤트 운영을 위한 자원 확보 문제는 일본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펀드 레이징에 관한 정보 교환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 · 시마네현)

- 주민과의 충분한 합의를 거치며 착실하게 재개발을 추진해 나가면 향후 마을 만들기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 색채와 역사, 문화를 적절하게 섞어 가며 재개발을 추진하면 주민과의 일체감이 더욱 돋보이게 될 것이다.

(일본 · 도쿠시마현)

- 도시 전체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정비를 전체에 대해 동등한 형태로 추진하면 실패한다. 각 부분의 기능을 바꾸고 역할을 분산시키는 구조를 만들고 정부와 주민 모두 납득하며 도시 정비를 추진하면 도시 만들기의 세계적 모델이 될 것이다.

(고토 강사)

- 외국인 관광객 수용에는 각국 문화의 독창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외국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로도 이어질 것이다.

(한국 · 경상북도)

- 사람을 맞이할 때는 진심 어린 환영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 주민이 지역에 자부심을 갖게 되면 정성 어린 환대로 이어질 것이다.

(일본 · 시마네현)

- 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키워드는 (1)유명 관광 자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지역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일 (2)지역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일이다. 이 두 가지가 모이면 그 지역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한 외국인 관광객이 반드시 찾아와 줄 것이다.

(일본 · 도쿠시마현)

- 중국 정부는 고령화 대책으로 노인홈을 건설하고 있으며 많은 민간 자본이 개호 시장에 투입되고 있다. 정부는 정책적인 지원을 전개하면서 다음 단계에 대비할 계획이다.

(중국 · 청두시)





테마3 ‘농업 · 농촌 진흥’

참가 지방정부	중 국 : 안후이성 쑤저우시, 산둥성 동잉시 인도네시아 : 서자바주 한 국 :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서산시 일 본 :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나라현
강 사	다카기 유키 NPO법인 일본프로농업종합지원기구 이사장, 전 농림수산 사무차관

참가 지방정부 리저널 리포트 발표 개요



중국 · 쑤저우시

신형 농업경영 시스템과 현대 농산업 시스템의 구축을 앞당겨 강한 농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 ① 식량, 목축, 과일·채소 등 농축산업과 임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 ② 농업의 산업화를 가속시킨다. 레저 농업과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킨다.
- ③ 농업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농업의 기계화를 도모한다.
- ④ 현대 농업 모델 거점과 시범 단지를 건설한다.
- ⑤ 가정 농장, 농민 합작사, 농업 기업 등 3대 경영체를 육성·발전시킨다.
- ⑥ 농촌의 토지제도 개혁과 금융 개혁을 추진해 농업 기술을 혁신한다.

결과,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산업화 진전 수준은 전 성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농업 인프라 정비 강화와 선도 기업 육성, 농촌 금융 혁신이 과제로 남아 있다.



중국 · 동잉시

발전 도상인 동잉시의 농업은 산업화와 조직화가 미비하고 농민이 스스로 시장에 진출하는 능력도 부족하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인 발전 계획에 따라 여러 모델 지구를 만들어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축소와 사회보장 일원화, 공공재 균등화, 생활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모델 지역인 현대적 농업단지(농업 파크)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합작사와 가정 농장, 농업 기업 등 새로운 경영 주체가 늘어나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교육 수준 향상과 고용 기회 확보, 수리 시설 정비, 배송 시스템 확립이 향후 과제이다.

한국 · 경기도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겸업 농가의 증가 추세를 적극 활용해 농촌 자원을 복합 상업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농업 인구의 유입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 과제이다. 소득과 고용 확대 효과가 큰 분야를 선정해 전략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소프트 면의 투자와 인프라 정비 등 지역 서포트 기능을 충실화한다. 또 농어촌 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서포트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R&D(연구개발)와 식품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국가 식품 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주체 간의 커뮤니케이션 형성과 가공식품 처리 기술, 전문적 마케팅 분야에 대한 추가적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 · 충청남도

농업 종사자 육성을 위해 귀농·귀촌에 힘쓰고 있다. 귀촌 센터를 통한 청년과 선도적 농가와의 매칭, 정착을 위한 기반 정비 지원을 비롯해 어린이들의 농촌 정착을 위한 기업·학교 유치도 병행하고 있다. 또 인재 육성을 가장 중요시해 ‘인재의 지산지소’를 목표로 농촌 지도자 육성에 임하고 있다. 인재 육성에는 시간이 필요하나 유기적인 체제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농가와 귀농·귀촌 세대 수가 증가하고 효율성과 마을 만들기의 전체적인 분위기, 농업 종사자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 · 서산시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농특산물 명품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점 시책으로서 농업특산물 분야의 서산명인 육성 프로그램과 품질인증 마크 ‘서산뜨레’의 운영,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사업화, 농산물 수출 활성화, 대형 식품제조 기업과 연계한 가공제품 개발, 축제 등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행사의 내실화, 외식 산업 브랜드화를 통한 소비 촉진, TV·라디오·신문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을 장기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활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 중인 시책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농축수산 도시’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 서자바주

서자바주는 인도네시아 최대의 식량 공급지이다. 가정·공업·농업의 상수원인 찌파룸강은 토양 보전과 지반 경사를 무시한 토지 이용과 토지 용도의 변화, 화학 비료와 농약의 남용 등으로 침식과 퇴적,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 하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과 함께 수질 오염을 억제하고 생물 다양성과 삼림·경작지 보호,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통한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농업 폐기물로 인한 수질 오염을 억제하기 위해 유기 농약을 개발해 농약 오염을 줄이고 가축 분뇨의 퇴비화, 위요지 활용과 약초 개발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시책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지원이 필요하며 농촌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도 뒤따라야 한다.



일본 · 야마나시현

세계화와 지구 온난화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지역 경제 견인과 지방 창생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매력 창조의 원동력이 되는 농업’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고품질화와 판로 개척으로 성공하는 농업을 전개한다. 해외 홍보와 상설판매 거점의 설치, 야마나시 6차 산업화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신상품 개발과 시장 요구에 대응한 과수 품종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활기찬 농산촌의 창조를 목표로 취농 정착 지원의 충실화와 기업의 농업 진출 촉진을 도모하고 담당자의 요구에 맞는 기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신규 인력이 증가하고 현산 과일의 수출액도 해마다 늘고 있다.



일본 · 시즈오카현

녹차 생산량·생산액 전국 1위 유지와 녹차 산업, 문화, 학술 연구 등 모든 분야의 중심지인 ‘녹차의 고향 시즈오카’ 건설을 목표로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향기 좋은 녹차 상품 개발과 판로 확대 지원 ② ‘세계 녹차 축제’를 통한 해외 홍보 ③세계 농업 유산 ‘차초장(茶草場)농법’과 다원 경관을 살린 지역 활성화, 관광 진흥 ④생산 비용 절감·에너지 절약 ⑤녹차의 건강 기능과 효용에 관한 연구와 그 성과의 홍보 ⑥녹차에 친숙한 시즈오카현민을 위한 ‘녹차의 고향 시즈오카 현장’의 제정 등이다.

그 결과, 신상품 생산과 홍차·우롱차 등 신상품 개발 종사자가 늘어나 녹차 수출량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다원 면적과 생산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일본 · 나라현

나라현의 농가는 경영 면적이 작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휴경지 비율도 높은 상황이다. 전국적으로도 낮은 나라현의 농업 산출액을 늘리기 위해 (1)브랜드 품질인증제도 구축 (2)종형(縦型) 사업협동조합 육성 (3)소비직결형 6차 산업화 추진 (4)논을 밭으로 전환해 수익성 높은 채소 재배나 축산을 추진하는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나라현 주도로 수도권에 대한 나라현산 농산물 판매와 프로모션을 실시해 일정 수준의 인지도와 평가를 얻었으나 나라현 내 채소 재배는 활발치 않다. 또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는 반면, 경작 포기율이 높은 것도 생산액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만큼 미국 전역과 유럽에 대한 수출을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품목인 쌀에 대해서도 FTA보다 강력한 수입 개방 압력을 받을 수 있어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국 · 서산시)

- 한미 FTA는 유리한 점도 불리한 점도 있다. 쌀은 쇠고기와 함께 매우 민감한 품목이라 협상을 통해 유리한 형태로 해결하고 싶다. 지역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므로 국가적인 이익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

(한국 · 경기도)

- 과수 등의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 매출이 줄고 사기에도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 · 야마나시현)

- FTA와 TPP 등 국제협정은 국익에 부합돼야 하나 민감한 품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쨌든 농업은 지역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세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각국이 자국 농산물의 장단점을 어떻게 살려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다카기 강사)

- 관세로 인해 녹차를 한국에 대량으로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나 한국은 일본 녹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세가 낮아지면 한국에 대한 수출 전망은 밝아지므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반면 녹차 수출의 경우 잔류 농약 등 엄격한 국가별 제한 기준을 충족한 제품 생산이 실제 수요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 단계부터 방제 기준별로 수출 대상국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

(일본 · 시즈오카현)

(강사 총괄 코멘트)



농업은 국가의 매우 소중한 자원으로 경영 자원인 농지의 활용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 산업면의 농업 정책과 지역 정책·환경 정책과의 균형이 중요하다.

농업을 산업으로 봤을 때 경영의 관점이 필요하며 그 자원의 핵심은 사람이다. 농업으로 생활이 가능해야 사람들이 농업에 참여한다. 또 농작물은 수요에 맞춰 생산해야 팔리게 된다. 이를 위한 하나의 해법이 6차 산업화이다. 그 모체로 농업 법인 등 신규 취농자를 수용할 환경도 필요하다.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농촌에 살면서 지역 정책과 산업 정책을 일체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실태를 수치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결정하는 일이다. 그리고 현장 실태 정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식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농업도 산업인 만큼 농업 종사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위험을 감수하며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 따라서 각 지역의 사정을 감안해 국가·지방정부·경영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이다.

참가 지방정부 의견 교환부터

- 각 지역의 역사와 토지 조건은 서로 달라도 공통적으로 각 지역의 근간을 이루는 농업에 관해서는 각기 최적화와 다양한 연구·노력을 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생산·가공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점은 아직 발전 단계에 있다.

(다카기 강사)

- 내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에 주력하고 싶다. 농촌 발전은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기 조 강 연



수장 토의

테마1 '관광에 의한 지역경제의 진흥'



'중국인 관광객이 본 나라, 중국인 관광객을 나라에 유치할 좋은 기회'



다이빈

중국여행연구원 원장

2014년의 중국인 해외 관광객은 약 1억 700만명, 소비액은 1,650억 달러에 이른다. 그중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약 241만명, 1인당 소비액은 12만 7,000엔으로 방일 외국인 관광객 중 최고이며 성장률 또한 최대이다. 또 올해 벚꽃 개화 시기에는 사상 최고인 35만 명이 일본을 방문하는 등 아웃바운드를 통해 세계의 관광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한편,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인 해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배경에는 아웃바운드 증진, 국민소득 확대, 여행국 비자 완화 등이 크게 관계하고 있으며 관광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성장 전략, 정책 설계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아웃바운드는 아직 시작 단계로 적어도 향후 10년간 높은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은 중국의 도시 주민과 중산층에게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으며 중국인들에게 있어 해외 여행은 향후 국내여행처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단체여행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자유롭게

여행을 즐기는 개인 여행도 증가하고 있다. 관광객은 더욱 자유롭고 질 높은 관광을 기대하고 있으며 현지의 특색 있는 생활을 체험하고 싶어 한다. 여행국 정부와 업계, 그리고 사회는 그 요구를 파악해 일본과 중국의 관광업계, 특히 여행사와 협력함과 동시에 개인 관광객을 위한 인터넷 미디어와 호텔, 온천, 민박, 학술 기구 등과도 협력·교류하면서 충실한 중국어 안내, 결제 서비스 확대 등 관광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의 정비·개선을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관광에 관한 동아시아 지방정부 간 정기 교류의 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인 해외 관광객의 만족도 조사 보고서를 각국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중국 환영'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교환과 함께 일본을 포함한 전문 연구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정기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또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등 27개국에 걸쳐 중국의 아웃바운드 목적지를 조사한 결과 일본은 줄곧 1위이다. 일본은 장소적으로 가깝고 마음도 친숙해지기 쉽다. 그리고 나라는 중국과 친숙한 도시로 역사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도시이자 일본과 해외 관광객의 고향이기도 하다. 그러한 일본과 나라의 이미지를 TV와 미디어,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특히 청년들을 향해 적극 홍보해 주시길 바란다. 나라의 여러분이 중국에 오셔서 직접 홍보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일본의 지방정부 및 민간 여러분이 중국에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우수한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과 나라를 방문하게 되기를 바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조해 특히 비자와 수출입 정책면에서 더욱 중국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한다. 또 관세와 물류면에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 일중 양국의 경제, 문화, 정치, 외교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 촉진은 '무해백익(無害百益)'으로 이점이 매우 많다. 국민간의 깊은 상호 이해와 교류가 여러 국가 간 문제들의 해결로 이어진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참가 지방정부

중 국: 허난성, 산시성, 안후이성 황산시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특별주
한 국: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부여군
베 트 남: 푸토성, 푸토성 비엠티시
일 본: 돗토리현, 가가와현, 나라현, 나라현 가시하라시, 나라현 고세시

강 사

야마다 케이치로 JTIC.SWISS 대표, 정부인정 관광 카리스마
다이빈 중국여행연구원 원장

강 사 스 피 치



야마다 케이치로 JTIC.SWISS 대표, 정부인정 관광 카리스마

관광 진흥의 중요한 포인트 5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과거 시책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다. 행정은 총괄 없이 새로운 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경향이 있으나, 과거 관광 정책의 실패·성공 이유를 검증하지 않고 추진하면 새로운 실패를 낳을 뿐 장점을 살릴 수 없게 된다.

두 번째, 일본 DMO(목적지 관리 조직)의 시책에는 마케팅이 빠져있다. 마케팅이란 민간 기업을 예로 들면 고객 요구에 대응한 서비스·상품화를 통해 가격을 정해 판매하는 활동이다. 즉 마케팅 자체가 기업의 존재 의의인 것이다. 반면에 특히 일본 관광협회가 DMO로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선전과 홍보

뿐으로 이들은 마케팅이 아니다. 마케팅이 없으면 서비스·상품화를 도모할 수 없고 고객과 시장의 신용·신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며 브랜드 구축 또한 불가능해진다.

세 번째는 여행 목적지로 선택받는 명확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 관광지와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 관광 소재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린 서비스·상품화가 여행 목적이 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단순히 구경하며 도는 통과형 관광에서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단순한 콘텐츠 제공이 아닌 그 지역만의 필연성을 갖춘 관광 상품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

네 번째는 지역의 미래상(지향해야 할 모습)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특히 (1)미래상 (2)시장에 제공하는 가치 (3)사회적 사명 등 3가지를 관광지 경영의 상위 개념으로 확립해야 한다. 미래상의 이상과 현실 간 괴리를 허물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동 전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법을 궁리하는 것이 전략이며 그러한 명확한 전략이 있어야 전문인 수단이 결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관광객 수가 아닌 소비액과 파급액을 중요 목표 지수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시책의 부재이다. 지역 경제의 진흥을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쓰이는 돈의 양이 물론 중요하나, 그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현금 유동성을 가속시키는 구조가 없으면 경기는 좋아지지 않는다.

이번 테마인 '관광에 의한 지역경제의 진흥'이라는 관점에서 특히 2가지 요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지역 내외의 연계라는 관점이다. 지역 내 연계의 기본은 다양한 산업·사업자 간 상거래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화, 현금 유동성의 가속화이다. 또 지역 외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사이에 공통된 테마와 스토리가 필요하고 콘셉트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광역에서도 고객에게 동일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 외 투자와 기술, 노동력도 중요하나 개발 수익 축적과 이용 수익의 지속적인 개선

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실제로 경제 활동을 통해 수익 사업으로 이익을 올린다는 의미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체는 민간 사업자(주민)이다. 그리고 행정의 역할은 이해관계 조정, 타 산업 간 제휴의 동기 부여, 예산화이며 민간 사업자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조정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지역 전체를 망라하는 전문 인력의 육성은 행정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또 최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①KGI(Key Goal Indicator: 중요 목표달성 지표)=달성해야 할 목표 ②KSF(Key Success Factors: 중요 성공요인)=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적 행동 요소의 정리 ③KPI(Key Performance Indicator: 중요 업적평가 지표)=KSF를 달성하기 위해 실현할 지표 등을 설정한 뒤 PDCA 사이클을 끊임없이 돌리며 정책·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장 토의 참가자



중국 · 허난성
WANG, Jinglin
뤄양시 부시장



인도네시아 · 욱야카르타 특별주
Imam Pratanadi
관광국 마케팅과 과장



중국 · 산시성
YANG, Zhongwu
관광국 국장



한국 · 공주시
MYEONG, Gyu Sik
부시장



중국 · 황산시
ZHOU, Yong
상무 부시장



한국 · 부여군
RHI, Ryong Woo
군수

수장 토의



베트남 · 푸토성
HOANG Cong Thuy
부시장



일본 · 나라현
후쿠이 요시나오
관광국 국장



베트남 · 비엠펙시
LE Sy Hong
부시장



일본 · 가시하라시
스기타 고지
종합정책부 부장



일본 · 돗토리현
요시무라 후미히로
관광교통국 국장



일본 · 고세시
히가시가와 유타카
시장



일본 · 가가와현
야스마쓰 노부아키
교류추진부 부장



일본 · 나라현의회
이누이 히로유키
관광진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참가 지방정부 의견 교환 내용

1. 관광 소비액 향상을 위한 시책 (1) 통과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① ‘시간 소비’를 위해

- 최근 허난성 뤼양시는 옛 도읍지 특유의 문화자원과 생태자원, 경관자원, 산업자원을 살려 관광 산업에 주력해 왔으나 많은 과제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관광객 유치수가 많은 반면 관광객 1인당 소비액과 체류 기간은

적은 형편이다. 관광 상품과 서비스 질의 향상, 소비 금액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허난성)

- 소비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체류시간 연장과 관광상품 개발, 상업·호텔의 제휴, 미식 등 4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산시성에서는 화청지(華淸池)에 야간 조명을 설치해 관광객의 숙박을 유도하고 소비액을 늘리고 있다. 관광 상품은 수상 경력보다는 생활 밀착도를 중요시하고 있다. 또 호텔이 상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 체류 중 쇼핑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례를 배우고 싶다. 허귀 등의 음식도 관광 산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산시성)

- 요나고공항 발착 국제항공편과 사카미미나토 취항 여객선으로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스포츠 체험을 좋아하는 한국인 관광객을 위해 다이센(大山) 등산 코스와 다운힐 자전거, 캠프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체류 시간 연장과 숙박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일본·돗토리현)

- 지속적인 고객 확보를 위해 현재 약 30만 명의 관광객과 외국인이 참가하는 ‘사이버 시민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이버 시민들이 공주시를 방문하거나 관광 홍보를 하면 숙박 비용과 특산물 가격의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교육 여행에도 힘쓰고 있다. 예를 들어 체험 관광은 학생이나 어린이가 참가하면 부모나 조부모도 함께 오게 되며 어릴 때 좋은 추억을 만들면 어른이 된 후에도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하게 된다. 교육 여행은 이러한 지속적인 선순환 효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한국·공주시)

②숙박 시설 부족의 해결책

- 숙박 시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옛 도읍지의 이미지에 맞는 조선시대 전통 가옥 숙박촌을 만들어 하루 5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곳에서는 농촌 팜스테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 지역과 함께 인근 도시의 관광지에도 관광객이 발길을 옮기는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유네스코 등재 이후 증가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중견 규모 이상의 콘도를 건설할 계획이다.

(한국·공주시)

- 현재 있는 롯데호텔(약 320실)과 2개 대형 유스호스텔(약 500실)로는 객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형 호텔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게스트 하우스와 농촌 체험이 가능한 민박도 활용하고 있으며 템플 스테이도 준비하고 있다.

(한국·부여군)

- 나라현은 관광객이 증가하는 반면 숙박시설이 적어 관광 소비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지금이 기회라고 본다. 나라현의 시정촌은 규모가 매우 작은 점을 감안해 개별적인 시책이 아닌 나라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숙박시설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

(일본·고세시)

③새로운 콘텐츠 개발

- 돗토리현은 인바운드 진흥을 위해 타 도도부현에는 없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애니메이션·만화를 활용한 유치에 임하고 있다. 특히 ‘명탐정 코난’ ‘게게게의 기타로’ 기념관은 돗토리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외국에서도 많은 개인 관광객과 소규모 단체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일본·돗토리현)

- 가가와현에는 세토나이카이라는 자연 자산이 있다. 다른 곳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세토나이카의 섬들을 배로 오가는 여행이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이다. 이러한 세토나이카와 현대 예술을 융합한 ‘세토우치 국제 예술제’를 3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또 관광객의 체류 시간 연장을 위해 참가·체험형 콘텐츠로 가가와현의 명물 ‘사누키 우동’을 직접 만들고 먹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가가와현)

- 인근 지역과 공동으로 스포츠 합숙 유치에 임하고 있다. 2019년 럭비 월드컵과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대비해 외국인 선수의 합숙 유치와 관광 소비액 확보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일본·고세시)

- 여행은 이문화 체험이라는 관점에서 가가와현의 ‘사누키 우동’ 수타 체험과 같이 그 지역의 생활 양식을 상품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스포츠나 레저 활동도 생활 문화이다. 이들을 통해 유치에 임할 때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즐기면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야마다 강사)

(2) 관광 상품 개발에 관해

- 비엠티시는 관광객의 요망을 반영한 관광 상품 개발·판매와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베트남·비엠티시)

- 관광 상품 기획은 대상 선정부터 시작된다. 기존의 관광 자원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시장 측이 원하는 것을 서비스·상품화해야 한다. 또 시장을 확대하려면 피라미드 정점의 최상위 고객층에 대한 서비스와 상품 고객 단가를 올려야 한다. 그러면 샐워 효과로 저변까지 시장이 확대된다. 상품은 계층화된 모든 카테고리에서 각 대상에 맞춰 개발한다. 시장 피라미드 정점이 높아지면 시장 전체의 격이 높아지고 시장 규모도 확대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야마다 강사)

- 좋은 상품을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기 위한 2가지 포인트가 있다. 하나는 스토리가 있는 브랜드, 나머지는 생산 과정의 시각화이다. 공예품은 일상용품과 달리 생산 비용과 매력, 필요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스토리와 감정을 융합시키고 옛 것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결합된 신뢰성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다이빈 원장)

(3) 비수기 대책

- 겨울철 관광객이 적은 나라현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오타테야마 축제’를 개최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일본·나라현 의회)
- 비수기인 겨울철에는 스키장과 온천에 주력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했다. 또 문화는 시즌을 가리지 않는 점에 착안해 겨울에는 매년 민족 문화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중국·산시성)
- 관광 비수기의 신규 고객 유치는 어려운 일이다. 반면 일손과 시간에 여유가 있는 비수기의 장점을 살려 성수기와는 다른 가치를 단골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야마다 강사)

2. 자연환경 보호와 관광을 위한 활용

- 일본에서 국립공원은 관광 킬러 콘텐츠이나 국립공원 관리에는 관광을 위한 활용과 자연보호라는 상반된 명제가 존재하는 만큼 그 둘의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요시노쿠마노 국립공원과 그 안에 있는 세계유산 ‘기이산지의 영지와 참배길’처럼 활용과 보전이 경합하는 경우도 있다. 관광과 환경을 조화시키면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관광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일본·나라현)
- 지역 자연공원의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관광 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은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반면 국립공원과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면 생태계 보호와 지역 경제 발전의 조화가 문제가 된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환경과 문화를 보호하면서 가능한 한 관광지로서 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국·황산시)
- 국립공원은 혁신적이고 모방할 수 없으며 인위적으로 파괴하면 완전히 상실된다는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 보호를 우선한 중국 국경절 등 휴일 제도와 관습에 맞춘 관광객 분산 및 혁신적인 관광지와 일반 관광지의 구별도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산시성)
- 지역 보전과 경제발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 제정과 적절한 운용이 동반되어야 하며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에서는 환경보전과 경제 활동·지역 진흥 촉진을 위해 생태관광 추진법이 제정되었다. 또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 이용에는 적절한 구역 나누기가 필요하다.
(야마다 강사)

3. 지역 주민의 의식 향상

- 나라현은 객실 수와 숙박 수가 일본에서 제일 적다. 나라현 내 문화·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의식의 결여가 한 원인이라고 본다. 또 1,300년에 이르는 역사·문화유산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예를 들어 건물 건설 시 지하유적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발굴 조사 등 다양한 규제가 민간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나라현 전체를 보는 큰 관점에서 민간사업자와 함께 숙박시설 유치와 각 사업자의 가동률 향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선결 과제인 지역 주민의 의식 개혁을 위해 가능한 한 행정도 솔선해 실천해 나가고 싶다.
(일본·나라현)
- 매년 11월에 관광객에게 에도 시대의 옛 민가 등을 개방하는 이벤트 ‘시모쓰키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넓고 허름한 것으로만 여겨진 옛 민가가 외국 관광객들에게 높은 평가를 얻으면서 지역 주민 사이에 자신의 집과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 다른 관광객을 성심껏 환대하는 선순환이 일어났다. 어릴 때부터 지역의 훌륭함을 전하고 의식을 심어 주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고세시)
-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이 단결하는 계기가 된다. 어린이들에게도 자신의 지역에 계속 살고 싶다는 자부심이 확립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인재 양성으로도 이어지게 된다.
(야마다 강사)



총괄



야마다 케이치로 JTIC.SWISS 대표, 정부인정 관광 카리스마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진흥을 위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명확한 비전의 제시와 그에 따른 계획의 입안·실시이다. 일본의 예를 들면 시정촌의 기본 계획과 현의 기본 계획 또는 지역 창생의 인구 비전·종합 전략과의 정합성 확보 여부가 향후 과제다. 지역 연계 시에는 각 지자체 간의 방향성을 끊임없이 확인함으로써 하나의 계획 하에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과 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또 지방 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민간사업자가 울타리를 넘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며 그러한 장소를 설정하고 논의를 촉구해 나가는 것도 지방 행정의 큰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관광은 외화 획득 수단이다.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돈이 줄어들고 경기도 침체된다. 또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해 지면 인제는 월급 등 조건이 좋은 곳으로 유출된다. 관광은 지역이 노력해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을 지키는 인재를 지금부터 육성해야 한다. 또 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 변화에 따라 시장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금 역력이 있을 때 고객 단가를 높여 두면 미래의 가능성은 매우 커진다.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창의적인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의 소재를 살린 서비스·상품 제공에 노력해 더욱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장이 성숙할수록 관광은 단체에서 개인으로 이동한다. 개인화하면 그만큼 다양한 선택받는 이유와 목적이 요구된다. 세계의 개인 관광객을 자신의 지역에서 집산화시킴으로써 시장이 활성화하고 확대되도록 힘써야 한다. 타깃을 좁히고 다양한 계층에 맞춰 상품화해야 한다. 또 새로운 서비스·상품 개발에는 ‘바로 지금’ ‘이곳에서만’ ‘당신만을 위한’ 등 3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오늘은 실제로 서로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며 서로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다. 향후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동아시아 각지에서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수장 토의

테마2 ‘마을 만들기, 지역 만들기’

참가 지방정부	중 국 : 쓰촨성 청두시
	말레이시아 : 말라카주
일 본	국 : 경상북도
	후쿠시마현, 나가노현, 시마네현, 도쿠시마현, 나라현, 도쿄도 아라카와구, 나라현 이카루가초, 나라현 아스카무라, 나라현 고료초
강 사	고토 겐이치 (주)Prot Asia and Pacific대표이사 회장, 내각부 지역활성화 전도사

강사 스피치



고토 겐이치 (주)Prot Asia and Pacific대표이사 회장, 내각부 지역 활성화 전도사

마을 만들기 활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정직한 나머지 재미있는 요소가 없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재미있는 일과 즐거운 일에 돈과 시간을 쓴다. 따라서 지금 해야 할 일은 관민이 일체가 되어 전례에 집착하지 말고 재미있고 즐거운 ‘특별한 장소 만들기’에 도전하는 것이다.

21세기 지역 활성화 키워드는 ‘글로벌 벨류’와 ‘글로벌 에지’이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로컬과 로컬로 이어져 외국이 매우 가까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의식하면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 세계 각지에 신뢰할 수 있는 동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 ‘글로벌 벨류’를 창출하려면 지역의 물건, 장소, 그리고 사람의 환대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은 세계에 자랑할 매력이자 어느 지역에도 존재하는 매력들이다. 이러한 매력을 인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솔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자기 책임하에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며 이 두 가지를 갖추면 지역은 확실하게 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이 자신의 매력을 발견하기 위한 3대 키워드는 ‘장소 콤플렉스’ ‘장소 제철’ ‘장소 문화’이다.

‘장소 콤플렉스’는 그 지역이 지닌 열등감으로 장소 콤플렉스와의 대치가 지역을 성장시킨다. 즉, 자신의 지역과 타 지역과의 차이를 주민들이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차이는 열등감이 아닌 개성이 된다. 도시와 시골은 대립되는 구조가 아니라 역할이 다를 뿐이다. 그 차이를 살려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소 제철’은 계절과 날씨의 변화 속에서 지역이 만드는 특별한 표정(경관)으로 어느 한때만이라도 장소가 멋진 광경을 연출하면 장소 콤플렉스가 해소되어 지역의 개성을 더욱 발휘할 수 있다.

‘장소 문화’의 장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자 자연이다. 문화는 사람이며 사람이 지닌 지혜이다. 이들의 융합에서 ‘장소 문화’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주민의 자부심이 생겨난다. 문화는 전통성과 회소성에 따라 가치가 높아지나 그것은 지역 주민의 생활에 존재하는 것으로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도 미래를 응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유지해 나가야 한다.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데는 주민들의 진지한 의식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이 중요하다. 포인트는 즐거운 것(자신의 관점)과 멋진 것(관광객의 관점)이며 이 2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의식하면 사업의 가치와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관광객의 만족뿐만 아니라 지역 자체의 만족도 의식함으로